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체험해 보세요”

광주시 ‘시민·기업 AI 바우처 사업’ 의료·복지 등 체험이용료 90% 지원 원격 구강검진·잔디관리 로봇 다채 “시민 삶의 질 향상·기업 매출 증대”

광주시가 지역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90% 상당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지역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 이용자를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의료·보건·복지, 안전·방범·방재, 문화·관광·스포츠, 고용·근로, 비즈니스, 기타 분야 등 총 15개 AI 제품과 서비스이다.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주아이클로의 ‘구강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원격 구강검진 솔루션’ △에이아이오디토리컬의 ‘정력 장애 진단 지원 및 청능 재활

앱’ △주인더스의 ‘바이탈 및 치매체크 키오스크’ △제니테크놀러지의 ‘자가검진용 인공지능 소변분석기’ △영앤의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진단 솔루션’ △디지털메디컬의 ‘노인용 인지훈련 및 정서케어 솔루션’ △이노디테크의 ‘인공지능 치아배열 최적화 및 치아교정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방범·방재 분야에서는 △그린에이아이 ‘자율주행 잔디관리 로봇’ △썬세이프모션 ‘어린이집 행동분석 솔루션’이 제공된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는 △주인디제이의 ‘사용자의 실시간 감정인식 기반 음악 추천 서비스’ △썬트위그팜의 ‘동영상, 문서 등 콘텐츠의 현지화 번역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고용·근로 분야에서는 △썬클라이온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대면 대화용 민원 지원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비즈니스 분야

는 △썬클로즈업의 ‘온라인 가상피팅 패션 플랫폼’이 제공된다.

기타 분야에서는 △썬아토모스의 ‘디지털 마케팅 성과관리 통합 솔루션’ △알레시오의 ‘태아 입체초음파 이미지를 활용한 생후 50일 아기 모습 예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민 AI 바우처 누리집(<http://www.aica-gj.kr/voucher>)을 통해 1인당 1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서비스 등록기업이 연결(매칭)되면 이용권(이용료의 90%)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민체감을 확대하고, 기업은 고객 확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성

장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4개의 광주 기업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선정돼 광주 시민 1300여명이 이용권(바우처)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일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기업들의 매출 증대·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지난 4월 선정된 총 18개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6월 이용자 모집을 거쳐 현재 7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시민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롯데아울렛 남약점, 남도장터와 함께하는 ‘롯데마켓’

내일까지 40여종 최대 10% 할인

롯데아울렛 남약점이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함께 전남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하는 ‘롯데마켓’ 행사를 통해 지역 상생에 나선다.

26일 롯데아울렛 남약점에 따르면 추석 명절 선물세트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인 ‘롯데마켓’은 롯데아울렛 남약점과 전남지역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행사다.

이번 롯데마켓에서 진행되는 롯데마켓은 남도장터와 함께 28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전남도 원산지의 한과, 꿀, 표고버섯, 김 등 40여개 품목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이번 롯데마켓은 지난 7월 진행된 남도장터 ‘우수상품 품평회’를 통해 엄선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보해양조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확대”

전남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 제품 연구개발·사업화 박차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는 지난 23일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임재휘 보해양조 연구소장,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업기술원 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남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공동 연구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외 유통 판로 모

색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상품 개발을 돕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개발될 제품들은 최근 소비 트렌드인 ‘로코노미(Loconomy)’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번 협력은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키며,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최권범 기자**

이다. 보해양조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고용 창출과 더불어 지역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 경제자립을 촉진하려는 지역 대표 항토기업으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보해양조는 최근 안도 다시마를 활용한 ‘다시, 마주’를 출시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으로 더욱 발전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가 스위스 장인정신으로 탄생한 골프웨어 ‘헬베스코(HELVESKO)’를 호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스위스 골프웨어 ‘헬베스코’ 오픈

본관 6층에 호남 첫 매장

스위스 골프웨어 ‘헬베스코(HELVESKO)’가 호남 첫 매장을 광주신세계에서 선보였다.

2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국내 첫 매장을 연 헬베스코가 지난 23일 광주신세계 본관 6층에 오픈했다. 호남 최초이자 신세계 강남점에 이은 국내 2호 매장이다. 이는 글로벌 패션 기업인 폰드그룹에서 진행하는 첫 골프웨어 브랜드 론칭이다.

그동안 광주신세계는 직매입한 제품을 선보이는 골프샵을 통해 헬베스코 골프웨어를 판매해 왔다. 광주신세계가 엄선한 제

품들 중에서도 헬베스코 골프웨어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고객들의 관심을 얻었다. 이로 인해 호남 첫 매장이자 국내 2호 매장을 광주신세계에서 열게 됐다.

헬베스코는 스위스 장인정신을 담은 신발브랜드에서 출발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탄생한 골프웨어 헬베스코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품질 소재로 독보적인 스타일을 제안한다.

특히 스위스 명품 수제와 브랜드로 출발한 브랜드답게 골프웨어의 모든 생산과정은 스위스에서 이뤄진다.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 받은 덕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다운 기자**

‘전기차 양산’ GGM, 지역인재 46명 공채

AI 역량 검사 등 공정성 확보

전기차 양산 성공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2024년 2차 일반직 및 기술직 사원을 모집한다.

26일 GGM에 따르면 생산 확대를 위한 인력 보충과 전기차 품질 조기 안정화 등을 위해 수출차 전담 인력을 포함, 기술직 신입 사원 39명과 일반직 7명 등 모두 46명의 상생형 지역 인재를 공개채용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지난 4월 50여명을 뽑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상반기 공개채용에서는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원서접수 마감

은 9월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AI 역량 검사를 마쳐야 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GGM은 지난 7월15일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면서 1만7000대 생산 예정이던 전기를 40% 증가한 2만3000대까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연장 근무와 매주 토요일 특근을 하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 추세인 데 반해 GGM의 경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덕분에 생산 현장이 활성화하고 활력이 넘쳐나

는 9월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AI 역량 검사를 마쳐야 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운몽현 대표이사는 “지난 15일부터 생산을 시작한 캐스퍼 전기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주문이 쇄도하는 등 성공을 거두면서 근로자 대부분이 연장 근무와 토요일 특근에 참여하고, 더불어 생산량 증가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GGM에 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협력사의 매출도 증가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채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인재를 선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장흥IC 양방향 전면차단

28·29일 오전 8시~오후 7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장흥IC 양방향(18.7km) 구간을 28일, 29일 양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면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차단은 강진분기점교 거더 거치

공사로 남해고속도로 상부를 횡단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면차단을 시행하는 시간에는 2번 국도 및 23번 국도(장흥대로)를 이용해 우회할 것을 부

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활용해 전방 작업 및 교통상황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App)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www.roadplus.co.kr) 등을 통한 우회도로 안내도 병행한다. **최권범 기자**